



천향길 베네딕다 수녀 | 성바오로딸수녀회

| LOVE MYSELF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 좋아했던 가수는 ‘이동원’ 씨입니다. 대부분의 앨범을 소장할 만큼 그 시절, 그의 노래는 저에게 ‘성사’였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비롯해 정지용 시인의 ‘향수’ 등 아름다운 노랫말이 가진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이 부른 많은 노랫말은 시인들의 시어(詩語)였습니다. 그 가사를 음미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BTS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요즘 방탄소년단(BTS)의 ‘덕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미(Army)’로 활동하진 않지만 조용하게 열렬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룹명은 물론 가수 이름도 모르는 저에게 그들은 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거듭되는 행보를 접할 때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자기 관리와 멤버들 간의 공동체성, 노랫말 메시지로 ‘랩’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저에게도 귀를 열게 했습니다.

데뷔한 지 5년 만에 그들이 어떻게 세계 정상에 설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평범한 그들이 뮤지션으로 성장한 성공신화를 보니까 그 중심에 팬들과 허물없이 소통하고 또래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케이팝 고유 가치를 지키며 기본에 충실했던 것’이 전부라

고 합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리더 김남준의 UN 연설은 훌륭했습니다.

인권 주일인 오늘, 그 내용을 떠올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LOVE MYSELF 캠페인을 유니세프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으로 말문을 엽니다. “LOVE YOURSELF 앨범을 발매하고, LOVE MYSELF 캠페인을 시작한 후 어린 전 세계 팬들로부터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었다”고요. “우리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랑하게 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를...” 거기서 그는 ‘말의 힘’을 느꼈다고 합니다.

평범한 소년이던 그는 어떻게 해서 꿈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는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걸 정말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결점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온 힘을 다해 자신을 끌어안고 천천히 조금씩 사랑해보려고 한다고요. 저는 방탄소년단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그들은 내 안에 열정과 가능성을 일깨워 주었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변화될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소가 뭐죠?

성소聖所는 라틴어로 vocatio인데, 어원적으로는 목소리vox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를 소명召命이라고 합니다. 즉 하느님의 부름심, 그분의 지시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좁은 뜻으로 수도성소나 사제성소로 국한하여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넓게 보면, ‘구원자 예수’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도 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우리 모두는 어떤 성소를 받았든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글_『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